

News

카카오뱅크 IPO 한다... 23일 이사회 결의

조선일보

카카오뱅크가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기업공개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혀... 연내 감사인 지정 신청과 상장 주관사 선정 절차에 나설 예정...
카카오뱅크는 꾸준히 IPO 가능성을 공식화해왔고... IPO 추진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본확충 수단 확보 차원

신용대출 금리 하락세 꺾였나

뉴시스

신용등급 1~2등급 우량차주들의 신용대출 금리 하락세가 꺾여... 시장금리 상승 영향... 증가폭은 작아 아직 유의미한 수치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금융당국은 전문직의 대출 한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신용대출 관리계획을 25일까지 제출하라고 각 은행들에 요구...

은행원 가족 셀프대출, 알고보니 기업銀뿐 아니었다

중앙일보

'은행원 셀프대출' 사태가 지난해와 2017년에도 각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 시정 조치 지적에도 내부통제 기준엔 여전히 구멍...
"은행원이 가족 대출을 직접 전결하고 금리를 부당하게 감면해주는 식의 부당 사례를 이제 철저히 끊어야 한다"

'소상공인 2차 대출' 수요 늘어날까

한국경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이 지원 대상·한도를 늘려 새로 시행에 들어가... 높은 금리와 낮은 한도로 외면 받아 이를 보완...
1차 대출과 중복 수해도 가능해져 자영업자들의 추가 대출 움직임이 이어질지 관심...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보험금청구 1만건당 0.8건 소송...보험사 전부패소율 최고 33%

연합뉴스

지난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이 청구 1만건당 0.8건꼴로 나타나... 생명보험 소송 건수는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손해보험 소송이 많이 줄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민사소송은 내부통제와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소송 제기 비율은 적절한 수준"

홍남기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등 규제개선"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3일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42개 규제 개선 발표... 이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관련 내용 포함...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한다"

은성수의 '신용용자 고금리' 지적 한달... 증권사 대응은 '미적미적'

조선일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거래용자 고금리 장사'를 압박한 지 약 한달이 지났지만 일부 증권사만 금리를 조금 인하할 계획...
증권사의 신용용자 금리는 최저구간 평균이 5.64%로 은행보다 2배가량 높아... 지난 3월 16일 이후 신용용자 이자율을 내린 증권사는 전체 28개사 중 5개사뿐

고객 돈 4조원으로 은행 이자 받는 증권사들, 고객엔 한 푼도 안 줘

조선일보

은행 등에 맡겨 연 최대 수백억원 이자... 고객에 이용료 지급, 규정 있지만 안 지켜... 고객에게 이를 돌려주는 곳은 미래에셋대우 한곳뿐...
"외화라고 해서 예탁금 이용료를 주지 않을 근거는 없는데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예탁금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